



현재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국회 의결 이후 적기 집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4.7.(화) 조선일보는 「추경안 6일만에 “2차 추경 필요”…편성 땀 최대 적자 우려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정부가 올해 첫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고작 엿새 만인데, 2차 추경의 균불을 땀다”고 보도하였으며,
- 국민일보는 「‘전쟁 추경’ 통과도 전에 2차 추경 가능성 솔솔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추경안 제출 직전까지 ‘추가 추경은 없다’고 못 박았던 정부 기조가 약 열흘 만에 뒤집힌 것이다”라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전에 추가 재원 투입 여지를 남기면서 정책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금번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, 중동전쟁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기업·산업 지원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재정 투입을 할 예정이며,
- 국회에서 금번 추경이 조속히 확정되면 정부는 추경 사업을 적기에 집행 하는데 최대한 집중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3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유현 (janes0425@korea.kr)